

# 구상도와 단린황후 설화를 통해 본 일본 19세기 구상관의 변용

김소연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soyeonkim@kookmin.ac.kr

- |                          |                     |
|--------------------------|---------------------|
| I. 머리말                   | IV. 단린황후 구상설화와 구상관의 |
| II. 구상관의 개념과 역사          | 재해석                 |
| III. 일본 쇼슈라이고지 소장 인도부정상도 | V. 맺음말              |

## 요약문

부정관(不淨觀)은 신체의 부정이나 사후 부패 및 백골화를 관상(觀想)함으로써 수행자 자신과 타인의 신체에 대한 집착과 욕욕(肉慾)을 끊어내는 것을 추구하는 수행법이다. 시신 부패의 아홉 단계를 관상하는 구상관(九相觀)은 부정관을 더 구체화한 것으로, 특히 일본에서 회화와 문학의 주제로 적극 수용되었다. 가마쿠라 시대 이후 구상관은 인도 초기불교 시대부터 이어진 수행법으로서가 아니라, 겐신의 『왕생요집』에서 논하는 정토 신앙과 육도윤회의 맥락에서 재해석되었다. 그리고 구상도(九相圖)는 이러한 재해석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구상도 중 초기 작품인 일본 쇼슈라이고지(聖衆來迎寺) 소장 인도부정상도(人道不淨相圖)는 일본 구상도 도상의 성립과 시대에 따른 구상관의 변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19세기에 제작된 인도부정상도 모사본과 이를 주제로 한 에토키(繪解き, 그림 구연)의 대본 『육도회상략연기』는 구상관과 구상도에 대한 에토시대의 달라진 해석

의 증거이다. 이 자료들은 일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에토키를 통해 구상도가 종종 역사적 인물인 단린황후의 이야기로 해석되었음을 보여준다. 단린황후의 서사와 결합하면서 구상관의 주체는 출가 수행자나 상류층 여성이 아닌 모든 여성으로 확장되었고, 가치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던 신체의 부정은 정토왕생을 막는 원죄로 해석되었다. 단린황후의 구상설화(九相說話)는 불교 회화인 구상도 뿐 아니라 일본 토착 신앙인 신도(神道)의 문헌과 시각 자료에도 등장한다. 불교와 신도를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정토 신앙 안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원죄 의식은 구상도같은 시각 자료와 그 에토키를 통해 퍼져나갔다. 이러한 구상관의 재해석과 변용은 종교와 종파에 관계없이 두루 수용되었던 19세기 일본의 민간 신앙의 일면이었다.

### 주제어

부정관, 구상관, 구상도, 『왕생요집』, 『육도회상략연기』, 에토키, 정토신앙

## I. 머리말

부정관(不淨觀)은 불교에서 인간 신체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개념 중 하나다. 신체 내부의 부정(不淨), 혹은 죽은 후 육신의 부패, 백골화를 관상(觀想)함으로써 수행자 자신 및 타인의 신체에 대한 집착, 그리고 육욕(肉慾)을 끊어내는 것을 추구한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육체의 물리적인 ‘더러움’, 그리고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죽음과 부패를 직시하여 수행자가 ‘착(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수행은 인도의 초기불교 시대부터 등장했다.<sup>1)</sup> 동아시아에서 부정한 신체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불교적 고찰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난 곳은 일본이다.<sup>2)</sup> 특히 부정관에서 더 구체화된 관상법인 구상관(九相觀)은 일본에서 불교적 수행법으로서만이 아니라, 문학과 회화의 주제로도 활용되었다. 구상관은 죽음의 순간부터 백골(혹은 무덤)이 되기까지 시신이 변

1) 강명희 2014, 178-179.

2) 일본 외 다른 지역에서는 관련 자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 중국 돈황에서 인간의 나이듦과 죽음, 부패를 아홉 단계에 걸쳐 논한 자료가 발굴되었는데, 초기 불교의 부정관 및 일본의 부정관 및 구상관과는 차이가 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川口久雄 1964 참조.



〈도 1〉 〈인도부정상도〉, 13세기 후반, 견본채색, 155.5x68.0cm, 일본 쇼주라이고지  
(출처: 『九相圖資料集成: 死體の美術と文學』, p. 8)

하는 아홉 단계를 관상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인도 초기불교의 부정관과 구상관이 원래의 의미 그대로 유통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구상관은 일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되면서 경전적 의미에서 벗어나 재해석되었다.

구상관을 회화로 재현한 구상도(九相圖)는 가마쿠라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에 걸쳐 제작되었다. 일본 구상도의 특징은 실제 시신을 보는 것처럼 신체의 부패 과정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는 점, 그리고 관상 수행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재가 신도들을 관람자로 전제했다는 점이다. 여러 시대에 걸쳐 제작된 구상도 작품들의 전반적인 도상 구성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나타나는 미묘한 도상적 변주는 각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배경으로 한 구상관의 재해석을 드러낸다.

이 글에서는 일본 쇼쥬라이고지(聖衆來迎寺) 소장 인도부정상도(人道不淨相圖)(도 1)와 그 관련 자료들을 통해 구상관이 19세기 일본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그림은 13세기 후반에 제작된 15폭짜리 육도회(六道繪) 중 한 폭이다. ‘인도부정상도’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그림은 중생이 윤회하는 여섯 세계 중 인간 세계, 즉 인도(人道)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화폭에는 사람이 죽은 직후부터 백골이 되어 사라지기까지의 아홉 단계, 즉 ‘구상(九相)’이 묘사되어 있다. 구상관 도상을 육도윤회 중 인간 세계의 한 장면으로 차용한 것이다. 이 그림은 현재까지 전하는 일본의 구상도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이후 19세기에 소장처인 쇼쥬라이고지에서는 이 15폭 육도회의 모사본을 제작했고 그림 구연인 ‘에토키(繪解き)’를 통해 일반 신도들에게 공개했다.<sup>3)</sup> 다시 말해 쇼쥬라이고지 소장 인도부정상도의 역사에서 구상관은 13세기의 15폭 육도회를 통해 한 번, 그리고 19세기의 모사본과 그 에토키를 통해 다시 한번, 이중의 재현과 해석을 거쳤다. 첫 번째 재현에 대해서는 일본 구상도 도상의 성립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sup>4)</sup> 이 글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즉 19세기의 모사본과 에토키에 나타나

3) 에토키는 그림 설명, 혹은 그림을 동반한 이야기 구연으로, 일본에서는 10세기부터 기록에 등장했다. 일본에서의 에토키의 역사적 전개는 Kaminishi 2006 참조. 명칭이나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불교사에서 교육이나 포교 목적의 그림 구연은 일본 뿐 아니라 인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등의 여러 불교문화권 지역에서 일찍이 등장했다. 인도와 중국의 그림 구연 전통에 대해서는 Mair 1989 참조.

4) 쇼쥬라이고지 소장 인도부정상도를 다루거나 비중 있게 언급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加須屋誠 1994; Chin 1998; Kanda 2005; 泉武夫·加須屋誠·山本聡美 2007; Tinsley 2015 등이 있다.

는 구상관의 재현이다. 원본과 모사본은 시각적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러나 후자의 해설, 즉 에토키에 관한 자료는 이 도상의 해석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준다. 19세기의 구상관은 13세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부정관과 구상관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일본에서의 구상도의 성립을 살펴본 후 이와 대비되는, 19세기의 관련 자료에 나타난 변화와 특징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상도가 19세기에 일반 재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와 교화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구상관에 원죄로서의 신체에 대한 인식이 덧붙여졌음을 논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해석의 배경에 당시의 민간 신앙이 공유하던 정도 신앙과 원죄 의식이 있었음을 살펴볼 것이다.

## II. 구상관의 개념과 역사

추하고 더러운 신체에 대한 인식은 싯다르타가 출가 이전 궁궐 무희들의 잠든 모습에서 추함을 느꼈던 일화까지 그 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아버지인 정반왕은 싯다르타의 출가를 막기 위해 아름다운 무희들을 동원하여 그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밤이 되자 추하게 흐트러져 잠든 여인들의 얼굴을 보고 싯다르타는 송장을 보는 듯한 혐오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 일화는 1세기 경의 저작인 『붓다차리타(*Buddhacarita*)』를 비롯, 한역 경전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破僧事)』, 『과거현재인과경(過去現在因果經)』, 『불설보요경(佛說普曜經)』 등에 등장한다. 신체적 아름다움의 무상부정(無相不淨)을 깨닫고 이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는 것에 대한 일화이다.

부정한 신체에 대한 인식은 초기불교 수행자들의 수행법인 부정관과 구상관으로 체계화되었다. 수행법으로서의 부정관은 여러 경전에 등장한다.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에 역경승 강승회(康僧會, ?-280)가 덧붙인 서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반복하여 세밀히 살피면, 몸 안의 더러운 농과 뺨뺨하게 곤두선 머리털을 마치 눈물이나 고름처럼 볼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이를 일러

네 번째 선(禪)이라고 한다”고 하였다.<sup>5)</sup> 2세기 경 안세고(安世高, ?-168)가 한역한 『선행법상경(禪行法想經)』은 더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만약 부정(不淨)하다는 상(想)과, 예식(穢食)의 상과, 일체 세간은 즐거움이 없다는 상과, 무상(無常)하다는 상과, 무상하므로 고(苦)가 된다는 상과, 고(苦)는 몸이 아니라는 상과, 몸이 아니므로 공(空)이 된다는 상과, 버리고 여의는 상과, 음(婬)을 물리치는 상과, 멸진(滅盡)의 상과, 내[我]가 없다는 상과, 몸이 죽으면 벌레의 먹이가 된다는 상과, 피가 흐른다는 상과, 배가 불룩해진다는 상과, 푸르딩딩하게 썩는다는 상과, 문드러져 비린내가 난다는 상과, 털이 빠지고 살이 없어진다는 상과, 일체의 묶임이 풀린다는 상과, 골절이 갈라진다는 상과, 뼈가 붉고 하얗게 변하고 말라서 검어지며 또한 회색과 같아진다는 상과, 뼈가 녹아서 재가 된다는 상과, ...중략... 이 모든 상(想)의 일을 생각한다면 모두 정진을 행하는 것이 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것이다.<sup>6)</sup>

사후 신체가 부패하여 변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제시한 부분은 부패의 아홉 단계를 관상하는 구상관의 초기 단계로 보인다. 구상관은 후한대에 한역된 『선요경(禪要經)』, 동진 시대에 한역된 『중아함경(中阿含經)』 등을 시작으로 여러 경전과 논서에 중요한 수행법으로 등장했다. 문헌에 따라 구상관의 아홉 단계의 내용과 명칭, 순서는 조금씩 다르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는 『대지도론(大智度論)』과 천태 지의(天台智顓, 538-597)의 저작 『마하지관(摩訶止觀)』에 나오는 아래의 구성이다.<sup>7)</sup>

- 
- 5) 『安般守意經』(T602, 15:163b7-10): “還觀其身自頭至足反覆微察內體汚露森楚毛豎猶睹膿涕於斯具照天地人物其盛若衰無存不亡信佛三寶衆冥皆明謂之四禪也.” 본 논문에서 대정신수대장경에 수록된 경전 인용문의 번역은 모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웹사이트(<https://kabc.dongguk.edu>)에서 제공하는 번역을 참조하고 필요한 경우 필자가 최소한의 수정을 더했다.
- 6) 『禪行法想經』(T605, 15:181b24-c5): “若念不淨想穢食想一切世間無有樂想無常想無常爲苦想苦爲非身想非身爲空想衰離想卻姪想滅盡想無我想身死爲虫食想血血流想降脹想青腐想糜爛腥臭想髮落肉盡想一切縛解想骨節分散想骨變赤白枯黑亦如鳩色想骨糜爲灰想世間無所歸想世間無牢固想世間爲別離想世間闇冥想世間難忍想世爲費耗不中用想世爲災變可患厭想一切世間歸泥洹想諸比丘若以彈指間念此諸想之事皆爲精進行爲奉佛教.”

- ① 창상(脹相): 사체가 부풀어 오르는 모습
- ② 괴상(壞相): 사체가 부패하는 모습
- ③ 혈도상(血塗相): 사체가 피고름으로 뒤덮인 모습
- ④ 농란상(膿爛相): 사체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고 살이 문드러진 모습
- ⑤ 청어상(靑瘡相): 사체가 검푸르게 변한 모습
- ⑥ 담상(噉相): 들짐승이 사체를 뜯어먹는 모습
- ⑦ 산상(散相): 사체가 온전하지 못하고 산산이 흩어진 모습
- ⑧ 골상(骨相): 백골만 남은 모습
- ⑨ 소상(燒相): 남은 뼈를 불태우는 모습<sup>8)</sup>

그렇다면 수행자들은 부정관이나 구상관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했을까? 『선요경』에서는 “죽은 시체는 냄새가 나고 문드러져서 깨끗하지 못하니, 우리 몸의 깨끗하지 못함도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이다(一卽死屍臭爛不淨我身不淨亦復如是),” “자신의 몸에 대해 죽은 시체라고 생각하니(卽於我身作死屍想)”라고 하여 실제의 시신을 앞에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시신과 같이 생각하며 관상하라고 제시했다.<sup>9)</sup> 『아비달마구사석론(阿毘達磨俱舍釋論)』에 나오는 백골관(白骨觀) 역시 실제 백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 위에 백골의 가상(假想)을 관찰하는 방식이다.<sup>10)</sup> 반면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毗達磨大毘婆沙論)』에서는 “무덤 사이로 가서 시체의 푸른 어혈 등의 모양을 관찰하고 그 모양을 잘 취한 뒤에는 물러나 한 곳에 앉아서 거듭 그 모양을 관찰한다. 만일 마음이 산란하면서 명료하지 않으면 다시 무덤 사이로 가서 앞에서와 같이 관찰하며 그 모양을 잘 취”할 것을 제시했다.<sup>11)</sup> 실제 백골이나 시신 대신 그 이

7) 山本聰美 2009, 198. 여러 경전과 문헌 자료에서 제시한 각기 다른 구상도의 단계와 명칭. 순서는 山本聰美, 西山美香 2009, 180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8) 『大智度論』(T1509, 25:217a6-c19): “九相脹相壞相血塗相膿爛相靑相噉相散相骨相燒相...是九相斷諸煩惱於滅婬欲最勝爲滅婬欲故說是九相.”

9) 『禪要經』(T609, 15:237c27-28, 238a20).

10) 『阿毘達磨俱舍釋論』(T1559, 29:270a3-7): “若觀行人欲修習不淨觀從初於自身分中安置於心或在脚指或在額上隨所樂處心已隨事後於身分作假想除皮肉血等次第治骨令淨心見具足骨聚相如見一骨聚假想見.”



〈도 2〉 테페 쇼토르 Cave A 북벽 (출처: Tarzi 1976, fig. 19)

미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정법념처경(正法念處經)』에서는 “어떤 중생이 선정을 닦는 이로 하여금 생사를 떠날 마음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 방에 시체를 그려 그것을 관(觀)하게 하면 그는 목숨을 마친 뒤에 상유희천에 태어나서 항상 쾌락을 누린다”고 하였다.<sup>12)</sup> 방식은 다르지만 여러 문헌에서 부정관을 중요한 수행법으로 제시했고, 실제로 많은 비구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실천했던 것으로 보인다. 『잡아함경(雜阿含經)』 등에는 부정관으로 인해 자신의 몸에 혐

11) 『阿毘達磨大毘婆沙論』(T1545, 27:205b15-17): “先往塚間觀察死屍青瘀等相善取相已退坐一處重觀彼相若心散亂不明了者復往塚間如前觀察善取其相.”

12) 『正法念處經』(T721, 17:136b2-4): “有衆生爲修禪者生厭離故圖畫房舍作死屍觀是人命終生常遊戲天常受快樂.”

오감을 느낀 수행자들이 자살하거나 살해당하는 사건이 나온다.<sup>13)</sup> 이 역사적 사건은 부정관을 대신하는 수식관(數息觀)이라는 새로운 수행법이 제시되는 계기가 되는데, 수식관 이전까지 부정관이 비구들의 수행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다.

문헌에 쓰인 것처럼 초기불교 시대 수행자들은 부정관 수행의 일환으로 실제 시신이나 백골을 관찰하거나, 시신의 심상을 떠올려 관상하거나, 아니면 시신을 대신하는 이미지를 활용했을 것이다. 시각물 중에서 불교 사원에서의 부정관 수행을 증언하는 자료로는 아프가니스탄에 위치한 핫다(Hadda) 테페 쇼토르(Tape Shotor) 석굴사원의 벽화(도 2)가 잘 알려져 있다. 테페 쇼토르 사원 중 벽화가 있는 해당 굴(Cave A)은 3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4)</sup> 지금은 파괴되어 사진으로만 그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굴의 북벽에는 백골을 보고 관상을 하는 듯한 두 수행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벽화의 내용 때문에 일찍이 이 굴은 부정관을 위한 공간으로 해석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백골이나 시신 이미지가 당시 불교 사원을 장엄하던 여러 도상 중 하나일 뿐 반드시 관상굴의 지표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그보다는 임종 의례를 위한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sup>15)</sup> 그러나 해당 공간의 성격에 상관없이 백골을 관상하는 부정관의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이 벽화는 이 부정관이 당시 수행자들에게 익숙한 수행법이었음을 보여준다.

테페 쇼토르 벽화의 사례나 『정법념처경』 등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백골이나 시신의 이미지는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초기불교 시대 사원에 종종 그려지던 주제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6)</sup> 그렇다면 구상관은 어떠한가? 부정관처럼 구상관 역시 여러 문헌에서 언급되었다. 그리고 그 중 대다수는 구상관의

13) 이 사건에 대한 문헌들의 분석은 강명희 2014 참고.

14) Vanleene 2018, 154

15) Greene 2013. 비슷한 맥락에서 Robert Sharf는 석굴의 용도와 형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오히려 그 연관성이 특정 장소의 용도에 대한 지나친 일반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Sharf 2013, 44.

16) Greene 2013, 292.

각 단계를 마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즉 구상관은 시각화에 매우 용이한 주제였다. 그러나 13세기 이후에서야 등장한 일본의 구상도와 관련 이미지를 제외하면, 인도는 물론 다른 불교문화권 지역에서도 구상관 이미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구상관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전통이 전무했을수도 있고, 혹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부정관 이미지가 매우 드문 것처럼 구상관 이미지도 관상이나 장엄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가 소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III. 일본 쇼쥬라이고지 소장 인도부정상도

#### 1. 13세기 작 인도부정상도

구상관에 대한 시각자료가 남아있는 곳은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에 현전하는 구상도의 형식은 족자, 회권(繪卷) 등으로 고정되지 않았다. 족자에는 한 폭에 아홉 단계를 모두 그려진 반면, 회권에서는 각 단계가 독립된 그림처럼 따로 묘사되는 등 형식에 따른 구성 상의 차이는 있지만 단계별 도상은 형식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다. 그림 외에도 구상관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도 남아있는데, 특히 구상관을 시로 표현한 구상시(九相詩)와 그 삽화를 결합한 구상도권(九相圖卷)은 일본에서 구상관이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예술의 소재로 적극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sup>17)</sup>

일본 구상도의 특징 중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주요 소재인 시신이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sup>18)</sup> 성별에 대한 암시가 없었던 테페 쇼토르의 벽화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인도나 다른 지역에 유사한 사례가 남아있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문헌 기록에서도 부정관 수행을 위한 시신 이미지에

17) 일본의 대표적인 구상도, 구상시 및 관련 자료 개괄에 있어서는 山本聰美 & 西山美香 2009가 좋은 참고가 된다.

18) 교토 사이간지(西岸寺) 소장 구상도처럼 드물지만 남성 시신과 여성 시신이 한 쌍을 이루어 그려진 구상도도 있다. 이 작품은 에도시대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성별을 특정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수행법으로서의 부정관은 욕망의 대상인 여성의 신체는 물론(남성) 수행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집착도 끊어내는 것을 추구했으므로 관상 대상의 성별이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sup>19)</sup> 따라서 관상 수행의 보조 장치, 혹은 사원 장엄을 위한 시신 이미지는 성별, 나이, 지위가 특정되지 않는 몰개성적 대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 불교의 신체 부정에 대한 인식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여성 신체와 그에 대한 혐오는 앞서 언급한 싯다르타의 일화를 포함, 불교 전기 문학의 일화를 통해 주로 드러난다.<sup>20)</sup> 다시 말해, 경전의 교리와 관련된 시각자료가 관상 수행에 초점을 맞추어 무명의 관념적 시신을 묘사한 데 비해, 문학에서는 부정한 ‘여성’의 신체를 내러티브의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어, 장르별 혹은 매체별 부정관의 젠더 묘사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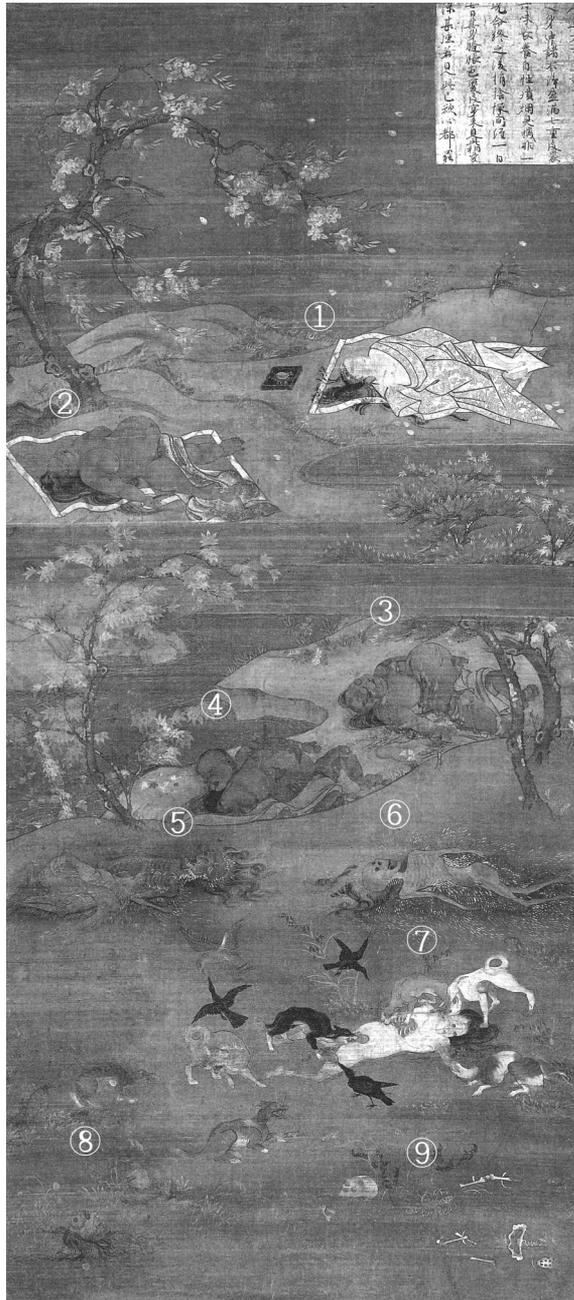
인도에서와 달리 일본에서 부정관 관련 시각물, 즉 구상도의 주인공이 여성으로 설정된 것은 초기불교 수행법으로서의 부정관과 다른 방식으로 구상도가 해석, 활용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사실 일본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혐오는 구상도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 『고사기(古事記)』 등에 기록된 일본 신화는 세상을 창조한 어머니 여신의 신체를 혐오스럽게 묘사하는 등 여성 신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다.<sup>21)</sup> 이러한 전통은 불교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이후 일본의 구상도가 여성 시신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쇼쥬라이고지 소장 인도부정상도로 대표되는 일본의 초기 구상도 도상은 『대지도론』, 『마하지관』 등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일본의 구상도가 이 경전들을 전거로 하여 성립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9) Pandey 2005, 198.

20) 예를 들어 『법구비유경(法句譬喻經)』에서는 특정 여성 인물에 대한 부정관 일화가 등장한다. 이처럼 유혹하는 여성 신체, 그 신체의 사후 부패와 이를 통한 관상은 주로 일화의 형식으로 불교 문학에 등장한다. 관련 연구로는 Wilson의 저작(1996)이 대표적이다. 국내 연구로는 옥복연 2015; 박정환 2017 참조.

21) 이경화 2022.



〈도 3〉 〈도 1〉의 구상관의 아홉 단계

앞서 언급했듯이 쇼쥬라이고지 소장 인도부정상도가 독립적인 구상도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육도회의 한 장면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 15폭짜리 육도회는 윤회하는 중생의 여섯 가지 세계인 지옥도(地獄道)·아귀도(餓鬼道)·축생도(畜生道)·아수라도(阿修羅道)·인도(閻魔廬圖)·천상도(天上道)를 다른 비중으로 나누어 묘사했다. 지옥은 염라청도(閻魔淸圖)·등활지옥도(等活地獄圖)·흑승지옥도(黑繩地獄圖)·중합지옥도(衆合地獄圖)·아비지옥도(阿鼻地獄圖)의 5폭으로 구성되고 아귀도와 축생도, 아수라도, 천상도는 각 1폭이다. 인도는 인도부정상도 1폭·인도고상도(人道苦相圖) 2폭·인도무상상도(人道無常相圖) 1폭으로 총 4폭을 차지한다.<sup>22)</sup> 이 중 인도부정상도에 바로 구상관 이미지가 그려졌다. 이렇게 인간의 세계를 부정(不淨), 고(苦), 무상(無常)으로 나누는 것은 헤이안 시대 승려 겐신(源信, 942-1017)의 『왕생요집(往生要集)』에 의거한 것이다.<sup>23)</sup> 즉 인도부정상도에 그려진 구상관 도상은 겐신의 정토신앙과 육도윤회의 담론을 배경으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구상관이 출가수행자의 관상 수행과 관련 없는,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되었던 것이다.

인도부정상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도 3). 높이 155cm, 너비 68cm의 세로로 긴 비단에 그려진 이 그림에는 냇물이 흐르는 낮은 언덕을 배경으로 총 9가지의 시신 장면이 나타난다. 이 아홉 장면은 한 여성의 시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패,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가장 위쪽 오른쪽에는 흰색 방제란에 목서가 써있는데, 『왕생요집』 중 인도에 관한 구절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sup>24)</sup> 각 장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그재그로 배치되어 있다. 맨 위의 ①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시신의 모습이다. 옷과 머

22) 육도회의 나머지 2폭은 비유경설화도(譬喻經說話圖)와 우바새계경설화도(優婆塞戒經說話圖)이다.

23) 겐신은 『왕생요집』에서 부정에 관한 부분은 『대지도론』과 『마하지관』에서 인용했음을 밝혔다.

24)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도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으니 하나가 부정상이다. 보통 사람들 몸 안의 모든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있다. 일곱 겹의 가죽으로 싸여 여섯 가지의 맛으로 장양하니 자성이 무너지고 문드러져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게다가 명이 끝난 다음에는 무덤에 버리고 나서 1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면 그 몸이 부풀어 오르고 색이 변하며 피부가 툭리게 된다. 이 상(相)을 보지 않으면 애욕에 물들이 몹시 강하다. 만약 이를 보게 되면 애욕의 마음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번역은 김성순 2019를 참조했다.

리가 다소 헝클어져 있지만 망자의 신체는 마치 잠이 든 사람처럼 깨끗하다. 그 아래쪽으로는 피부가 어둡게 변한 시신의 모습(②)이 보인다. 의복은 더욱 헝클어지고 벗겨져 신체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배와 가슴, 얼굴이 원래보다 부풀어 오른 모습이다. ③은 부풀어 오른 시신이 부패되기 시작한 모습이다. ④는 이보다 더 시간이 흘러 피고름이 흐르는 모습이다. ⑤는 피부가 문드러져 백골화가 시작된 것으로, 시신 주위로 구더기가 들끓고 있다. ⑥은 시신이 검푸르게 변한 모습이다. ⑦은 시신이 들짐승의 먹이가 된 장면이고 ⑧은 시신이 산산이 흩어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⑨는 백골만 남은 상황을 보여준다. 각 장면을 앞서 살펴본 『대지도론』의 구상관에 대입하여 살펴보면 각각 ②창상(脹相) ③괴상(壞相) ④혈도상(血塗相) ⑤농란상(膿爛相) ⑥청어상(靑瘀相) ⑦담상(噉相) ⑧산상(散相) ⑨골상(骨相)에 해당한다. 마지막 단계인 소상(燒相)이 따로 묘사되지 않은 대신 신사상(新死相)이 가장 첫 장면인 ①로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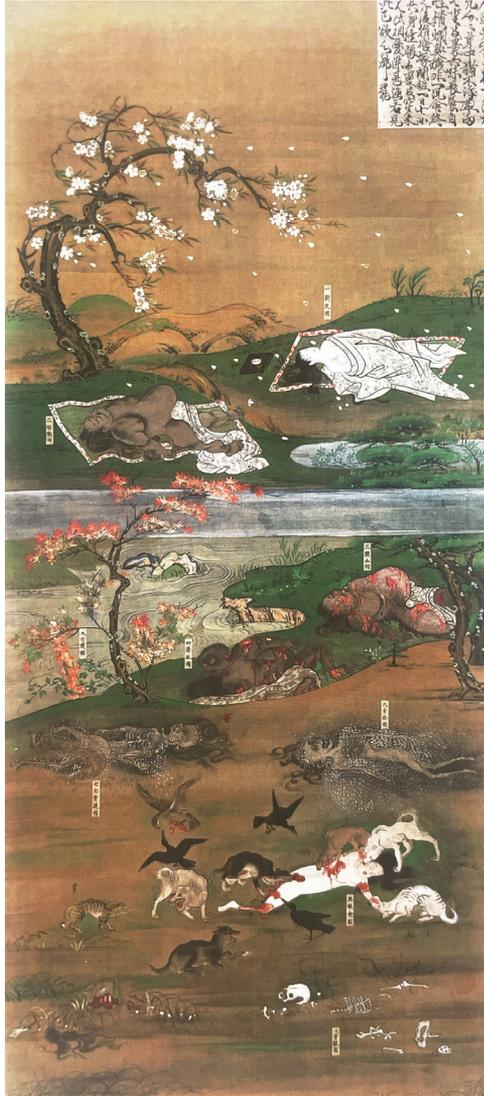
①신사상은 죽은 직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이나 구상시 등 일부 문헌에 등장하지만 『대지도론』과 『마하지관』, 그리고 『왕생요집』에는 언급되지 않는다.<sup>25)</sup> 방제에 『왕생요집』의 구절을 직접적으로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생요집』에서 제시한 구상관의 아홉 단계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은 의문을 자아낸다.<sup>26)</sup> 이는 인도부정상도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개인 소장 『구상도권』도 마찬가지인데, 생전상(生前相)이 추가된 것 외에는 신사상부터 골상에 이르는 아홉 단계가 인도부정상도와 완전히 동일하다.<sup>27)</sup> 당시 구상도의 제작에 『왕생요집』이 교리적 배경으로 작용했지만, 도상의 시각적 모델이나 규범은 따로 마련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사

25) 일본에서 구상시는 밀교 승려 구카이(空海, 774-835) 전칭작과 북송대 시인 소동파(蘇東坡, 1036-1101) 전칭작 두 종류가 전해진다. 이 중 소동파 전칭작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26) 겐신은 『왕생요집』에서 ‘구상’, 혹은 ‘구상관’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신체가 사후 어떻게 변하는지를 묘사하는 구절은 구상관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구절은 죽은 직후에서 시작하여 총 아홉 단계에 걸친 변화 끝에 시신이 흩어 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27) 이 작품의 도판은 山本聰美 & 西山美香 2009, 15-20에 실려있다.

상이 인도부정상도를 포함한 구상도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생전의 모습에 가까운 신사상을 죽은 후의 모습과 병치시킴으로써 후자의 혐오스러운 부패 과정을 시각적으로 더욱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도 4〉 〈인도부정상도(모사본)〉, 1822년, 견본채색, 일본 쇼주라이고지 (출처: 山本聰美 & 西山美香 2009, 9)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장면인 담상의 묘사도 인도부정상도의 독특한 점 중 하나이다. 담상 장면에서 망자의 신체는 비록 의복도 없고 흐트러지긴 했지만 신사상과 비슷하게 하얀 피부의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앞서 나열된 창상~청어상 단계에서 이미 시신이 훼손되어 백골에 가까워졌지만 시간적으로 그 이후에 해당하는 담상에서 시신이 다시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보는 이에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묘사는 추후 이 그림의 모사본이 제작되었을 때 각 장면의 순서를 다르게 해석하는 데에 일조했을 것이다.

## 2. 1822년작 인도부정상도 모사본

1822년에 제작된 인도부정상도의 모사본(이하 모사본)은 원본과 비교했을 때 구성과 도상에서는 차이가 없다(도 4). 다만 세부 장면마다 작은 흰색 방제란을 넣어 무슨 장면인지 표기했는데, 이는 당시 쇼쥬라이고지에서 구상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여준다.<sup>28)</sup> 각 장면의 방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신사상(一新死相)
- ② 방창상(二肪脹相)
- ③ 농혈상(三膿血相)
- ④ 봉란상(四逢亂相)
- ⑤ 담식상(五噉食相)
- ⑥ 청어상(六靑瘵相)
- ⑦ 백골련상(七白骨連相)
- ⑧ 골산상(八骨散相)
- ⑨ 고분상(九古墳相)

28) 모사본에 장면마다 흰색 방제란이 추가된 것은 인도부정상도뿐 아니라 육도회 15폭에 포함된 다른 그림들도 마찬가지이다.

각 단계의 명칭은 이전 시대에 가장 널리 유통되던 『대지도론』의 구상관과 조금 달라졌다. ①~④의 시간적 순서는 원본과 같다. 그런데 배치 순서로 7번째인 담상(담식상) 앞에 ‘五’가 적혀있다. 원본에서 7번째였던 담상이 모사본에서는 5번째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시간의 순서와 맞지 않는 듯한 담상의 시신 묘사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던 구상관 장면의 진행은 다소 무질서해졌다. 또한 모사본에는 기존 8번째 단계이던 산상(散相) 장면이 방제를 넣지 않고 대신 원본의 구상관에 포함되지 않았던 묘지석 부분에 마지막 단계인 ‘고분상(古墳相)’이라는 방제를 달았다. 묘지석은 ④와 ⑤ 사이에 그려진 나무 뒤쪽으로 작게 그려진 데다가 붉은 나뭇잎에 가려져 있어서 원본은 물론 모사본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배경 중 한 요소에 불과했던 묘지석이 1822년의 모사본에서는 기존의 백골 장면 대신 구상의 아홉 단계 중 마지막을 장식하는 고분상으로 설정된 것이다. 이는 원본이 그려지던 가마쿠라 시대와는 다르게, 흩어진 뼈를 수습해 무덤을 만들고 이를 관상하는 고분상이 구상관의 마지막 단계로 확고히 자리잡았던



〈도 5〉 〈구상사회권(九相詩繪卷)〉 중 제9 고분상, 1651, 견본채색, 일본 부츠도지(佛道寺)  
(출처: 山本聰美 & 西山美香 2009, 57)

에도시대 이후 구상도의 영향으로 보인다(도 5). 에도시대에 제작된 구상도는 대부분 마지막 단계로 비석이나 오륜탑, 무덤 장면으로 묘사된 고분상을 삽입했다. 그러나 13세기의 인도부정상도를 그대로 베낀 모사본의 제작자는 새로 무덤 장면을 삽입하여 원본과 시각적으로 차이를 두는 대신, 배경에 불과했던 작은 비석에 방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달라진 해석을 드러냈다.

한편 19세기에 쇼쥬라이고지에서는 육도회 모사본과 더불어 중요한 관련 문헌을 제작했다. 육도회를 대중들에게 설명하는 에토키 대본인 『육도회상략연기(六道繪相略緣起)』가 바로 그것인데, 육도회의 활용이 이 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sup>29)</sup> 육도의 다양한 모습을 신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윤회의 인연을 설명하는 에토키는 육도회의 새로운 활용 방식이었다.<sup>30)</sup> 원본과 달리 모사본에 각 장면의 내용을 알려주는 방제가 추가된 것도 에토키의 실행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19세기 자료인 모사본과 『육도회상략연기』의 특징은 무엇일까? 먼저, 모사본의 장면 해석은 구상관에 대한 여러 자료 중 전(傳) 소동파 작 구상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구상시는 14세기에 등장한 위작(僞作)으로, 무로마치 시대에 널리 유통되어, 이후 제작되는 구상도의 단계 정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sup>31)</sup> 이 구상시에서 제시하는 시신 변화의 아홉 단계는 신

29) 『육도회상략연기』의 원문은 林雅彦(1983)에 의해 인용된 다나카가(田中家) 소장본을 참고했다. 다나카가 소장본 외의 다른 사본으로 1887년 본 『육도회상략연기』가 있는데, 두 사본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1887년 본에 대해서는 眞保亨 1967 참조.

30) 『육도회상략연기』의 서문에는 쇼쥬라이고지 육도회가 원래 육도 뿐 아니라 성문계(聲聞界)·연각계(緣覺界)·보살계(菩薩界)·불계(佛界)를 합한 10계를 그린 30폭짜리 십계회(十界繪)였으나 16세기 병화에 의해 15폭이 소실되고 15폭만 남았다고 전한다. 眞保亨 1967, 42 참조. 도상과 구성은 크게 다르지만 10계의 이미지를 에토키를 통해 대중들에게 보여주면서 관련 교리를 전달하고 권진(勸進)을 하던 것은 후술할 구마노관심십계만달라(熊野觀心十界曼荼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31) 소동파본 구상시는 선행 자료인 구카이의 구상시를 개작한 것이다. 소동파본 구상시가 소동파의 진작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저자 미상의 한시(漢詩)로, 일본의 와카(和歌)와는 다른 ‘중국풍’ 때문에 중국의 저명한 시인의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소동파본, 혹은 구카이본 구상시에 삽화를 결합한 구상시회권은 무로마치 시대 이후 유행했는데, 수행, 혹은 육도 윤회의 일환으로 구상관을 논하는 다른 불교 경전에 비해 일본 궁중 문예 특유의 낭만적이고 문학적인 무상함이 두드러진다. 山本聰美 2009, 204-205; 相澤正彦 2009, 212.

사상-방창상-농혈상-봉란상-담식상-청어상-백골련상-골산상-고분상으로, 쇼쥬라이고지 인도부정상도의 도상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모사본 제작자는 방제를 통해 구상 순서를 뒤바꾸고 새로운 장면을 삽입하는 등 소동파의 구상시를 바탕으로 구상관 도상을 재해석하려 한 흔적이 역력한데, 당시 『마하지관』이나 『대지도론』같은 전통적인 경론보다 대중적인 문학 작품이 구상관의 해석에 더 영향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에도시대에 이르면 구상관이 특정 인물의 서사와 결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육도회상략연기』가 이것을 잘 보여준다. 일본의 초기 구상도에서는 시신이 여성으로 그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구체성 없는 무명의 시신이었다. 그러나 점차 구상도와 구상시같은 관련 예술작품이 활발히 유통되면서 구상관의 주인공은 무명의 시신이 아닌 단린황후(檀林皇后, 786-850)나 오노노 코마치(小野小町, 9세기 경)와 같은 역사 속 실존 인물로 특정되기 시작했다. 단린황후는 헤이안 시대 사가천황(嵯峨天皇, 786-842)의 황후였던 타치바나노 카치코(橘嘉智子)의 시호이다. 아름다운 외모와 깊은 불심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오노노 코마치는 단린황후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시인으로, 역시 아름다운 용모로 유명했던 인물이다. 생전에 절세미녀로 평판이 자자했던 두 인물은 에도시대에 이르자 사후 흥하게 부패해가는 구상관 속 시신의 모습에 대입되었다. 도후쿠대학 카노문고(東北大學 狩野文庫) 소장 단린황후구상도(檀林皇后九相圖)처럼 그림에 인물의 이름을 직접 명시하는 작품도 등장했다.<sup>32)</sup> 쇼쥬라이고지의 인도부정상도 및 모사본 자체에는 이들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다만 이 그림들을 바탕으로 한 『육도회상략연기』에 단린황후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어, 당시 에토키 연사가 신도들에게 인도부정상도를 설명할 때 단린황후 설화에 빗대어 이야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상도 및 구상관이 시간이 흐르며 경전의 본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맥락에서 적극 재해석되었음을 암시한다.

32) 西山美香 2009, 233.

#### IV. 단린황후 구상설화와 구상관의 재해석

단린황후 설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단린황후는 일본의 여러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초기 문헌에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선(禪)의 깨달음을 얻은 신실한 불교도이자 성녀로 기록되었다.<sup>33)</sup> 이러한 묘사는 중국의 선승(禪僧)을 초빙하고 선찰 단린사(檀林寺)를 창건했던 황후의 실제 행적과 무관하지 않다. 구상도와 관련한 단린황후의 이야기는 『도연초야퇴(徒然草野槌)』 등 17세기 이후의 출판물에서 비로소 나오기 시작한다.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단린황후는 불심이 깊고 어질며 얼굴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했다. 그 아름다움 때문에 수행하는 승려들의 마음이 흔들릴 정도였다. 어느 날 단린황후는 병을 얻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 황후는 유언으로 자신의 장례를 치르는 대신 시신을 들판에 버릴 것을 당부했다. 유언에 따라 들판에 버려진 황후의 시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흉하게 변했다. 구더기가 들끓고 피부가 검어지며 들짐승에게 먹히다가 결국 백골이 되었다. 황후의 아름다움을 흠모하던 사람들은 코와 눈을 막으며 이를 차마 보지 못했다. 이후 사람들은 황후의 유골을 모아 장례를 치렀다. 흉하게 부패하는 신체를 남들에게 보인 것은 욕망과 애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에게 인간 세상의 무상부정을 알려주고 불도에 귀의하게 하고자 한 황후의 자비와 신앙심에서 우러난 행동이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구상관에 대한 문학이나 회화에서의 배경 설정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마침내 단린황후라는 일본 불교사의 상징적 인물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허구이다. 『육도회상략연기』에서 이 설화는 육도 중 인간세계를 설명하는 부분에 등장한다. 『왕생요집』과 쇼주라이고지 소장 육도회가 인간 세계를 고상(苦相), 무상상(無常相), 부정상(不淨相)으로 나눈 것처럼 『육도회상략연기』에서도 인간 세계에 대한 부분은 고, 무상, 부정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된다. 이후 전개되는 내용은 대부분 구상관에 대한 것이다. 당시

---

33) 앞의 논문, 227.

에토키 연사가 신도들을 상대로 구연을 펼칠 때 문헌상으로는 이미지상으로 가장 자극적이고도 현실적인 구상관의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이 단린황후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여기는 52대 황제 사가천황의 비인 단린황후라고 한다. 불법에 대한 신앙이 지극하시었다. 미려하기도 하여 세상에 비할 것이 없었다. 그 모습을 본 자는 깊은 연모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서쪽 교외의 들판에 버려달라고 유언을 남기셨다. 버린 곳에 귀천남녀(貴賤男女)가 모여들어 마치 저자거리 같았는데, [황후를] 찾아보러 갔으나 7일이 지나고 또 7일이 지나니 모습이 변하여 결국에는 백골이 흩어진 모습이었다. ... 중략... 누구라도 인간의 부정한 모습이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죽으면 똑같이 부정하다. 말세의 중생의 미혹함을 없애기 위해 [스스로] 버려지도록 한 것이다.<sup>34)</sup>

단린황후의 이야기와 구상도가 결합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구상관의 해석에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구상관의 주체의 확장이다. 원래 수행법으로서의 구상관에서 여성은 주체가 아니라 수행의 방편에 가까웠다. 초기불교에서 구상관은 남성 수행자들의 애욕을 끊어내기 위한 수행법이었다. 이후 전기 문학의 일화에서 구상관의 대상이 여성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여성의 혐오스러운 시신을 통해 남성 관자들의 욕망을 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일본에서 제작된 1692년 『반야구상도찬(般若九相圖贊)』 등에는 구상관 아홉 단계의 삽화마다 시신을 보고 관상을 하는 남성 수행자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묘사되기도 했다.<sup>35)</sup> 즉 수행법으로서의 구상관은 여성이 아닌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관상의 대상인 시신은 성별을 알 수 없는 백골, 혹은 여성의 시신으로 묘사되었다.

한편 일본 구상도의 중심소재는 무명의 여성 시신에서 점차 특정한 상황에

34) 원문은 林雅彦 1983을 참조했다.

35) 이 작품의 도판은 山本聰美 & 西山美香 2009, 89-103에 실려있다.

농인 구체적 대상, 특히 궁정의 여성이나 귀족같은 상류층 여성으로 그려졌는데, 이는 12-13세기 이후의 귀족 여성 후원자의 등장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와 무관하지 않다.<sup>36)</sup> 이 때 구상도는 관상을 위한 도음물이 아니라 여성 관람자들에게 스스로의 부정을 자각하도록 하는 교화의 수단이었다.<sup>37)</sup> 특히 그 교화 대상은 그림에 묘사된 여성과 자신을 동일시 할 수 있는 상류층 여성이었다. 그런데 단린황후가 구상도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 그림의 교화 대상은 역설적으로 더욱 확장되었다.<sup>38)</sup> 단린황후는 상류층 여성일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여러 문헌과 설화를 통해 모범적인 여성 불교 신자로 자리매김한 상징적인 물이었다. 더욱이 그동안 구상도나 관련 문학에서 묘사된 여성 주인공, 혹은 무명의 여성 시신들이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는 자연적인 죽음과 부패를 거친 것과 달리, 단린황후는 의도적으로 흉한 부패의 모습을 내보임으로써 다른 이들의 깨달음과 불교로의 귀의를 이끌어 내고자 했다. 따라서 그녀의 시신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정하지만 그 뜻은 못 여성들의 귀감이 된다. 이렇게 본받아야 할 이상적 여성으로서의 이미지는 『본조열녀전(本朝列女傳)』 등 여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문헌에 단린황후의 구상설화가 삼입됨으로써 더욱 고착화되었다.<sup>39)</sup> 단린황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구상도를 보며 여성 관람자들은 스스로의 신체적 부정을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황후처럼 다른 이들의 깨달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불교 신자로서의 자비와 이타심을 길러야 했다.

두 번째 변화는, ‘부정’의 개념이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에도시대의 부정관에서 부정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민간 신앙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 토착 종교인 신토(神道)와 불교의 정토신앙, 그리고

36) 山本聰美 2019, 201.

37) 일본에서 여성 신체의 부정에 관한 교훈 및 자각에 대한 내용은 관련 설화의 유통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경화 2022 참조.

38) 여성의 모범으로서의 단린황후가 상류층 여성의 포교에 활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구상관의 맥락이 아니라 황후가 일본 선종의 독실한 신자이자 성인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했다. 西山美香 2009, 228.

39) 앞의 논문, 229.

그 포교의 수단으로서의 에토키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17세기 이후 단린황후는 일본 선종의 성녀라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구상도의 주인공으로 그 성격이 변했다. 이 변화의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이 에토키이다. 앞서 언급했듯, 에토키는 주로 불교 회화를 설명하는 행위였는데, 여기에서 불교 회화는 특정 종파에 구애되지 않고 여러 가지 교리와 주제를 다룬 이미지를 포괄한다. 심지어 이미지와 그 내용이 정통 불교 교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었다. 예컨대 특정 사찰의 연기담(緣起談)을 그린 그림이나 신토의 가르침 역시 에토키를 통해 퍼져나갔다.<sup>40)</sup> 이 때 에토키는 불특정 다수의 관중을 전제하기 때문에 대중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신토는 당시의 일본 불교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 양자를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린황후 설화도 신토의 수행자인 구마노 비구니들의 에토키 관련 자료, 『혈분경화해(血盆經和解)』에 등장한다. 『혈분경화해』는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혈분경(血盆經)』의 해설서이다. 『혈분경』은 중국 찬술 경전으로 여성의 출산혈과 월경혈이 땅과 물을 더럽히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 죄로 사후 혈분지옥에 떨어지게 되며 남은 가족들은 그녀의 구원을 위해 재(齋)를 지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41)</sup> 이 책은 명대 이후 성문화되어 일본으로 전파되었는데, 독특하게도 일본에서는 구마노(熊野)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한 신토 신앙인 구마노 신앙과 결합한 형태로 유통되었다. 1713년 일본 승려가 저술한 『혈분경화해』는 『혈분경』을 일반 신도들에게 해설할 구마노 비구니들을 위한 책으로, 일본의 독자적인 『혈분경』 해석 및 당시 구마노 신앙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혈분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린황후 이야기가 『혈분경화해』에 나오는 점은 『혈분경』의 일본식 재해석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내용은 다른 문헌에서 소개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40) 구마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신토 사찰의 비구니인 구마노비구니들은 에토키의 주요 강연자였다. 이들은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며 포교와 시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에토키를 펼쳤다. 김소연 2021.

41) 중국 내 『혈분경』의 발생과 유통에 대해서는 송요후 2014 참조.

날이 지나는 사이에 간장(肝腸)과 종기가 부풀어 오르고, 피부에 물이 차  
문드러지고 무너지며 창자가 흐르고 구더기가 생기며 파리가 꼬이며 색  
이 검어진다. ...중략... 선도 대사가 말하길 이 더러운 몸(穢身)을 버리면  
정토에 왕생하여 무량한 쾌락을 받는다고 하였다.<sup>42)</sup>

위와 같이 단린황후의 시신이 변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부분은 구  
상관 관련 문헌에서 인용한 것이 분명하다. 주목할 점은 마지막 부분에 부정  
한 몸, 즉 ‘에신(穢身)’을 버려야 정토 왕생한다고 한 부분이다. 부정관을 논한  
불교 경전에서 신체의 부정함은 가치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의  
신체가 부정하다는 것은 자명한 현상이고 이 사실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나  
이미지는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방편일 뿐, 부정한 신체는 선과 악  
의 잣대로 판단되지 않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언급은 정토 신앙의 맥락에서  
신체의 부정함이 정토에 갈 수 없게 하는, 일종의 죄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  
다. 부정한 몸은 죄이고, 따라서 인간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살아가  
는 셈이다.

『혈분경화해』의 단린황후 설화는 『혈분경』을 중심으로 한 구마노신앙에  
불교의 부정관 및 정토신앙이 모두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단린  
황후 설화와 구상관이 부정관 수행이나 육도윤회의 담론에서 더 나아가 불교  
와 신토를 아우르는 민간 신앙의 영역에서도 수용되었던 것이다. 사실 인간 신  
체의 부정함을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원죄로 보는 인식은 『혈분경』 전  
반에 흐르는 기조다. 『혈분경』에 따르면 월경을 하거나 출산을 한 대부분의 여  
성은 더러운 피를 흘렸다는 죄를 안고 살아간다.<sup>43)</sup> 죄에서 구원받고 정토에 가  
기 위해 여성들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남성 가족들에게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신체의 부정이라는 원죄를 씻어버려야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개념

42) 원문은 正徳3년(1713)에 간행된 쓰쿠바대학부속도서관(筑波大学附属図書館) 소장 『佛說大藏正教血  
盆經和解(불설대장정교혈분경화해)』 권4를 바탕으로 했다.

43) 일본의 신토 및 민간신앙에 나오는 ‘케가레(穢れ, 오염)’라는 개념은 더러움이 곧 죄가 된다는 전  
통적 인식을 잘 보여준다. 『혈분경』에서의 여성들의 피와 관련한 신체 부정 역시 일종의 ‘케가레’  
로, 여성금제(女性禁制) 등 여성 차별의 근거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宮田登 2010, 117-164 참조.

은 『혈분경화해』에서 단린황후 설화에까지 적용되었다. 여성의 생리적 현상이 더러워서 땅을 오염시킨다는 『혈분경』의 인식은 부정관에서 인간의 피부속 피와 땀, 골수와 배설물을 부정하다고 보는 것과 유사하다. 『혈분경』에서는 이것이 여성이 사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죄가 되는 반면, 부정관은 그 부정함을 죄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다. 그런데 단린황후 설화에서 황후는 스스로 신체의 부정함을 드러냈다. 그것이 정도에 왕생할만한 선업(善業)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혈분경화해』에서는 이를 죄업을 암시하는 ‘더러운 몸’을 버린 것으로 서술했다. 단린황후의 혐오스러운 신체와 선업의 병치는 사후



〈도 6〉 〈구마노관심십계만다라〉, 에도시대, 지본채색, 크기 미상, 일본 호센인(宝泉院)

정도에 왕생하고 싶은 이들, 즉 더러운 몸이라는 원죄로 인해 지옥에 갈 것이 예정된 여성들의 회개를 유도한다. 이 때 황후는 원죄를 씻는 것에 성공하여 정토 왕생한 모범사례가 된다.

여성의 신체와 그 원죄에 대한 담론은 구마노 비구니들의 주요 에토키 소재였던 구마노관심십계만다라(熊野觀心十界曼荼羅)(도 6)에서도 시각화되었다. 에도시대에 발생하고 유행한 이 그림은 제목처럼 10계를 그린 그림이지만 그 중에서도 육도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의 모습이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그림의 하단부에 펼쳐지는 여러 지옥 중에는 피를 흘려 땅을 더럽힌 여성들이 고통받는 혈분지지옥의 모습도 나타난다. 육도 중 인간 세계는 그림 중앙의 아치형 다리를 건너는, 아기부터 청장년을 걸쳐 노년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행렬로 묘사되었다. 가장 마지막인 죽음 장면은 무덤이나 탑, 장례의 모습이 아니라 들짐승에게 먹히는 백골 시신으로 나타난다(도 7). 구상도의 담식상을 연상시킨다.<sup>44)</sup> 들판에 버려져 훼손된 시신은 보편적인 죽음의 장면이라기보다 구상관, 부정관에서 등장하는 극단적인 모습이다. 구마노관심십계만다라의 도상에 동시대 구상도의 영향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구마노 비구니들이



〈도 7〉 〈도 6〉의 세부

44) 김소연 2021, 212-213.

이 그림을 펼쳐놓고 관람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설한 것은 육도윤회와 지옥의 여러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 정토에 왕생하는 방법이었다. 이들이 설한 정토 신앙과 원죄로서의 부정한 신체에 대한 이야기에는 구상관, 단린황후 설화, 혈분경 등 신도와 불교를 아우르는 여러 요소들이 얽혀있었다.

## V. 맺음말

구상도와 『혈분경화해』, 그리고 구마노관심십계만다라 등의 자료는 민간을 대상으로 복합적으로 전개되었던 에도시대 정토 신앙을 반영한다. 부정관과 정토신앙, 육도윤회의 이야기에 더러운 몸에 대한 죄의식이 더해진 것은 포교 대상의 확장 및 신앙의 대중화의 결과였다. 『육도회상략연기』나 『혈분경화해』와 같은 에도 후기 문헌들의 공통점은 둘 다 에토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원 자료인 인도부정상도와 중국 찬술 『혈분경』에 포함되지 않았던 단린황후 구상설화가 덧붙여졌다는 점이다. 이 공통점을 통해 우리는 두 자료가 원 자료의 교학적 탐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중화의 수단이자 결과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아니라 넓은 범위의 신도들에게 신앙을 전파하고 시주를 이끌어내기 위해 에토키의 연사들은 흥미로우면서도 자극적인 소재를 활용했다. 특히 단린황후 설화는 계층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여성 신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이 설화를 통해 에토키 연사는 신체의 부정, 원죄의 자각, 정토 왕생을 위한 선업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에토키를 둘러싼 구상관의 이러한 재해석은 종교와 종파에 관계없이 두루 수용되었던 19세기 일본의 민간 신앙의 일면이었다.

## 참고 문헌 REFERENCES

### ◆ 약호 및 일차 문헌 Abbreviations and Primary Sources

T *Taishō shinshū daizōkyō* 大正新修大藏經, ed. by TAKAKUSU Junjirō 高楠順次郎 and WATANABE Kaikyoku 渡邊海旭, 100 vols. Tōkyo: Daizōkyōkai, 1924-1935.

- 『安般守意經』 T602.  
『禪行法想經』 T605.  
『大智度論』 T1509.  
『禪要經』 T609.  
『阿毘達磨俱舍釋論』 T1559.  
『阿毘達磨大毘婆沙論』 T1545.  
『正法念處經』 T721.  
『法句譬喻經』 T211.  
『佛說大藏正教血盆經』 己新續藏 第1冊 no. 23.  
『佛說大藏正教血盆經和解』 筑波大学附属図書館藏本.

### ◆ 이차 문헌 Secondary Literature

AIZAWA, Masahiko 相澤正彦. 2003. 「室町時代の二つの九相詩図巻」(“Two Kusōshi-zu Scrolls from the Muromachi Period”), in 『九相圖資料集成: 死體の美術と文學』 (*Kusōzu: the Nine Stages of a Decaying Corpse-the Art and Literature of Decomposition*), ed. by YAMAMOTO Satomi 山本聰美 and NISHIYAMA Mika 西山美香, Tōkyo: Iwata Shoin 岩田書院, 212-224.

CHIN, Gale. 1998. “The Gender of Buddhist Truth: The Female Corpse in a Group of Japanese Paintings,”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vol. 25, no. 3-4, 277-317.

Dongguk University Academy of Buddhist Studies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rchives of Buddhist Culture), <https://kabc.dongguk.edu/> (2024).

01. 20. 검색).

- GENSHIN 源信, KIM, Seongsun 김성순, tr. 2019. 『왕생요집』 (*Essentials of Birth in the Pure Land*), Seoul: Pulgwang Ch'ulp'ansa 불광출판사.
- GREENE, Eric M. 2013. "Death in A Cave: Meditation, Deathbed Ritual, and Skeletal Imagery at Tape Shotor," *Artibus Asiae*, vol. 73, no. 2, 265-294.
- HAYASHI, Masahiko 林雅彦. 1983. 「六道絵相略縁起」 ("The Brief Origin Story of the Six Realms Paintings"), 『伝承文学資料集』 (*Collection of Folk Literature Materials*), vol. 11, 279-323.
- IZUMI, Takeo 泉武夫, et al. 2007. 『国宝六道絵』 (*National Treasure, Six Realms Paintings*), Tōkyō: Chuō Koron Bijutsu Shuppan 中央公論美術出版.
- KAMINISHI, Ikumi. 2006. *Explaining Pictures: Buddhist Propaganda and Eto-ki Storytelling in Jap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KANDA, Fusae. 2005. "Behind the Sensationalism: Images of a Decaying Corpse in Japanese Buddhist Art," *The Art Bulletin*, vol. 87, no. 1, 24-49.
- KANG, Myeonghee 강명희. 2014. 「부정관(不淨觀) 폐해에 대한 경율 간 상위 고찰」 ("The Study on the Difference of the Bad Effect of *Asubhābhāvanā* Reported in the Buddhist Sutra and *Vinaya* Texts"), 『불교문예연구』 (*The Journal of Buddhist Culture and Art*), vol. 4, 175-206.
- KASUYA, Makoto 加須屋誠. 1994. 「聖衆來迎寺本六道絵「人道不淨相図」考」 ("A Study on the Picture of the Impure Human Realm Housed by Shojuraigo-ji Temple"), 『帝塚山学院大学研究論集』 (*Tezukayama Gakuin University Research Journal*) vol. 29, 61-84.
- KAWAKUCHI, Hisao 川口久雄. 1964. 「敦煌本歎百歳詩·九相觀と日本の文学について」 ("Dunhuang Version of the Poem Lamenting the Hundred Years, Poem Meditation on Nine Stages of Decay and Japanese Literature"), in 『内野博士還暦記念東洋学論集』 (*Festschrift in Honor of Dr. Uchino's 60th Birthday: A Collection of Essays on East Asian Studies*), ed. by Uchino Hakushi kanreki kinen 内野博士還暦記念, Tōkyō: Kan Gi Bunka Kenkyūkai 漢魏文化研究会, 397-412.
- KIM, Soyeon 김소연. 2021. 「<구마노관심십계만다라도>에 나타난 에도시대 여성의 구원론」 ("Soteriology for Edo Women Represented in the Kumano Ten-Worlds

- Mandala”), 『미술사학보』 (*Reviews on the Art History*), vol. 57, 119-223.
- LEE, Kyeonghwa 이경화. 2022. 「여성의 신체에 대한 담론의 구조-일본 신화와 부정관설화를 중심으로」 (“The Structure of Discourse about the Female Body: Focusing on Japanese Mythology and the Folklore of *Paṭikkūlamanasikāra*”), 『일본어문학』 (*Journal of the society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apanology*), vol. 96, 2022, 293-312.
- MAIR, Victor. 1989. *Painting and Performance: Chinese Picture Recitation and Its Indian Genesi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NISHIYAMA, Mika 西山美香. 2009. 「檀林皇后九相説話と九相圖-禪の女人開悟談として」 (“Queen Danrin’s Nine Stages of Decaying Narrative and the Nine Stages of a Decaying Corpse Painting-as a Zen Tale of Women’s Enlightenment”), in 『九相圖資料集成: 死體の美術と文學』 (*Kusōzu: the Nine Stages of a Decaying Corpse-the Art and Literature of Decomposition*), ed. by YAMAMOTO Satomi 山本聰美 and NISHIYAMA Mika 西山美香, Tōkyo: Iwata Shoin 岩田書院, 225-237.
- NOBORU, Miyama 宮田登. 2010. 『ケガレの民俗誌: 差別の文化的要因』 (*Ethnography of Kegare: Cultural Factors of Discrimination*), Tōkyo: Chikuma Shobō 筑摩書房.
- OK, Bogyeon 옥복연. 2015. 「불교 경전에 나타난 여성혐오적 교리의 재해석 - 불교여성주의의 관점에서」 (“Reinterpretation of the Sexist Doctrine Appears in the Buddhist Scriptures: From the Perspective of Buddhist Feminism”), 『한국여성학』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vol. 31, 95-121.
- PANDEY, Rajyashree. 2005. “Desire and Disgust: Meditations on the Impure Body in Medieval Japanese Narratives,” *Momumenta Nipponica*, vol. 60, no. 2, 195-234.
- PARK, Cheonghwan 박청환. 2017. 「초기불교 내러티브의 여성에 대한 부정관 유형 연구」 (“A Study on the Models of the Contemplation of Foulness (*Asubhābhāvanā*) on the Feminine in the Early Buddhist Narratives”), 『동아시아불교문화』 (*Journal of Eastern-Asia Buddhism and Culture*), vol. 30, 3-27.
- SHARF, Robert. 2013. “Art in the Dark: the Ritual Context of Buddhist Caves in Western China,” in *Art of Merit: Studies in Buddhist Art and its Conservation*, ed. by David PARK, et al. London: Archetype Publications, Courtauld Institute of Art, 38-65.

- SONG, Yohu 송요후. 2014. 『혈분경의 기원과 사회 종교적 의미』 (*The Origin and Socio-Religious Significance of the Blood Bowl Sutra*), Seoul: Withusbook 위더스북.
- TARZI, Zémarylai. 1976. “Haḍḍa à la lumière des trois dernières campagnes de fouilles de Tapa-é-Shotor (1974-1976),” *Compte-rendu de l’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 Lettres* 120/3, 381-410.
- TINSLEY, Elizabeth, 2017. “The Composition of Decomposition: The Kusōzu Images of Matsui Fuyuko and Itō Seiu, and Buddhism in Erotic Grotesque Modernity,” *Journal of Asian Humanities at Kyushu University*, vol. 2, 15-45.
- TŌRU, Shinbo 真保亨. 1967. 「資料紹介 六道絵相略縁起」 (“Introduction of Research Materials: The Brief Origin Story of the Six Realms Paintings”), 『日本仏教』 (*Journal of Japanese Buddhism*), vol. 26, 42-56.
- VANLEENE, Alexandra. 2018.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Gandharan Art Production: the Case of the Modelling School of Hadda (Afghanistan),” in *The Geography of Gandhāran Art: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Workshop of the Gandhara Connections Project, University of Oxford, 22nd-23rd March, 2018*, ed. by Wannaporn RIENJANG and Peter STEWART, Oxford: Archaeopress, 143-163.
- WILSON, Liz. 1996. *Charming Cadavers: Horrific Figurations of the Feminine in Indian Buddhist Hagiographic Litera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AMAMOTO, Satomi 山本聰美. 2009. 「日本における九相圖の成立と展開」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Nine Stages of a Decaying Corpse Painting in Japan”), in 『九相圖資料集成: 死體の美術と文學』 (*Kusōzu: the Nine Stages of a Decaying Corpse-the Art and Literature of Decomposition*), ed. by YAMAMOTO Satomi 山本聰美 and NISHIYAMA Mika 西山美香, Tōkyo: Iwata Shoin 岩田書院, 198-211.
- YAMAMOTO, Satomi 山本聰美 and NISHIYAMA Mika 西山美香, ed. 2009. 『九相圖資料集成: 死體の美術と文學』 (*Kusōzu: the Nine Stages of a Decaying Corpse-the Art and Literature of Decomposition*), Tōkyo: Iwata Shoin 岩田書院.

## Understanding the Evolution of *Navasamjñā* in 19th-century Japan through the Legend of *Kusōzu* and Empress Danrin

KIM, Soyeon  
Assistant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Asubhabhāvanā* involves meditation on the explicit decay and skeletal transformation of the human body after death, with the aim of severing one's attachment to one's body and carnal desire for that of others. *Navasamjñā*, which is a detailed form of this practice, was actively adopted in Japanese art and literature. Since the Kamakura period, this practice has been re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Pure Land Buddhism and the cycle of the six realms, as discussed in the *Essentials of Rebirth in the Pure Land* by Genshin. Many *kusōzu* works have visualized this reinterpretation. An exemplary piece held at Shōjūraigōji in Japan is particularly notable for illustrating the establishment and evolution of *navasamjñā* in Japan over time.

19-century replicas of this Shōjūraigōji painting and its *etoki* (picture storytelling) scripts, entitled *The Brief Origin Story of the Six Realms Paintings*, depict an altered interpretation of *navasamjñā* and *kusōzu* during the Edo period. These materials reveal that *kusōzu* was frequently explained through the story of Empress Danrin, a historical figure, in the *etoki* performed for lay believers. As the narrative of Empress Danrin blended with *navasamjñā*, the audience for *kusōzu* extended to include all women. Additionally, the impurity of the body, which was not originally a subject of moral judgment, was interpreted as an original sin that hindered rebirth in the Pure Land. The fictional legend of Empress Danrin appears not only in

Buddhist paintings such as those in the *kusōzu* tradition, but also in texts and visual materials of the indigenous Japanese Shinto religion.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Pure Land belief, which encompasses Buddhism and Shinto, the notion of women's bodies as a manifestation of original sin spread through visual materials and their storytelling. This reinterpretation and transformation of *navasamjñā* were part of popular religious practices in 19th-century Japan, which were widely accepted in multiple religions.

#### Keywords

*Asubhābhāvanā*, *Navasamjñā*, *Kusōzu*, *Essentials of Rebirth in the Pure Land*, *The Brief Origin Story of the Six Realms Paintings*, *Etoki*, Pure Land belief

2024년 01월 29일 투고  
2024년 03월 05일 심사완료  
2024년 03월 07일 게재확정